

# 주장사파라...

④ 경봉 스님의 '고무줄'



조태호

그냥 밥 먹어라

수심이 가득찬 새댁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밥 먹었나?

안 먹었습니다

진리의 밥을 먹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무슨 여자가 수심보따리를 가득안고 다니냐

고무줄이 어딴터라

점연보살이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 신경질이 많다

고쳐라

고무줄처럼 당기면 늘어지고 놓으면 으스러진다

영덩이가 엉망이듯 ...

배움

사람도 신축성이 있어야 인생길에 상함이 없이 사는거야

선원의 문을 나서면 돌도 많고 물도 많다

버스에 용수철 쿠션이 없으면

돌부리에 쳐여서 자빠지지 말고

물에 빠져 옷 버리지 말고

사바세끼는 과부족과 희비극이 꼭찬곳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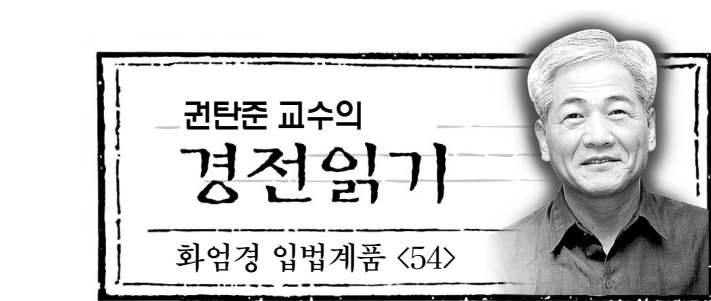
경봉 스님(1892~1982): 경남 밀양 생. 통도사에서 성해 스님 은사로 득도. 대교과 마치고 제방선원에서 안거. "아반삼경에 대문빚장을 만져 보아라"는 말씀 남기고 원적.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고요한 음성바다(寂靜音海) 주아신'이다. 주아신을 찾아가 예배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두는 법을 묻자, 그 주아신은 자기는 '보살의 생각'과 '광대한 기쁨'을 내는 장엄해탈문(念念出生廣大歡喜莊嚴解脫門)을 얻었다고 하였다.

선재동자가 그 해탈문은 무슨 사업을 지으며, 무슨 경계를 행하며, 무슨 방편을 일으키며, 무슨 관찰을 하는 것인지를 묻자, 주아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나서 구호하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아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보살의 청정한 서원의 힘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큰 지혜의 광명바다에 머무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중생이 근심과 괴로움을 여겨 하려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중생이 여래의 위없는 법의 즐거움을 성취케 하려는 마음을 내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다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온갖 지혜의 지위에 이르게 하니, 어떤 중생이 경계에 물들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또한 어떤 중생이 성내는 일이 많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광명바다에 머물게 한다. 어떤 중생이 게으름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청정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바라밀도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의 마음이 산란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선정바라밀도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 지혜가 없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번뇌바라밀도를 얻게 한다. 어떤



적정음해 주아신의 법문

## “모든 중생을 여래의 경계로 인도”

### 바다같은 지혜로 설법 ... 환희 심어줘

중생이 저를 이렇게 하는 행에 머무른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소원을 내게 한다. 어떤 중생의 마음이 교만한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평등한 법의 지혜를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한량 없는 법보시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되 갖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켜 나쁜 길을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의 낙을 받게 하며 삼계의 속박을 벗어나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고는, 그때에 나는 엄청난 즐거움과 법의 광명바다를 얻고 마음이 화창하여 편안하고 희열하는 것이다.

또한 선남자여, 나는 모든 도량에 모인 보살대중을 항상 관찰하여 그들이 갖가지 원과 행을 닦으며, 갖가지 깨끗한 몸을 이루며, 갖가지 향성한 광명이 있으며, 갖가지 광명을 놓으며, 갖가지 방편

으로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가며, 갖가지 삼매에 들어 갖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며, 갖가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며, 갖가지 장엄한 자리에 앉았음을 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도량에 모인 대중을 이와 같이 관찰하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한량없고 그지 없음을 알고 크게 환희한다. 선남자여, 나는 비로자나 여래께서 잠깐잠깐마다 부사히게 청정한 몸을 나타내심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 고는 크게 환희한다. 또한 여래께서 잠깐잠깐마다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함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크게 환희한다. 또한 여래께서 낱날 털구멍에서 잠깐잠깐마다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수 광명바다를 내는데, 낱날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수 광명을 권속을 삼고, 낱날이 모든 법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시킴을 관찰하니 이것

을 보고는 크게 환희한다.

나는 이것을 보고는 잠깐잠깐 동안에 매우 환희함을 내고 매우 믿고 좋아함을 내었으니, 예전에 얻지 못한 것을 지금 얻었고,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았고,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지금 듣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법계의 모양을 능히 분명하게 아는 까닭이며, 온갖 법이 오직 한 모양임을 아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이 생각각마다 크게 기뻐하는 장엄을 내는 해탈의 광명바다에 들어갔다."

주아신의 명칭이 '고요한 음성바다(寂靜音海)'인 것은 세속으로 들어가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고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선정(禪定)에 바탕을 둔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다처럼 광대함을 나타낸 것이다. 주아신이 살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법심과 설법에 의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교화하는 것에 한없는 환희를 느끼고, 여래와 보살의 거룩한 덕을 관찰함으로써 예전에 보고 듣고 얻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얻게 됨으로써 불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 생각각마다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도(道)를 체득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의 거룩한 경계를 관찰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을 실천함이 없이 부처님 법을 어렵기만 하고도 낯빠진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네터즌 교리문답

### ‘평상심’은 어떤 마음?

문 평상심이란 어떤 마음인가? 중생심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ID '초보자')

답 1: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평온하면 평상심에 가까운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회노애락'에 휩쓸리면 중생심에 가까운 것이 아닐런지요. (ID '초보자2')

답 2: '평상심이 곧 도(道)'라고 한 마조 선사(馬祖)는 '조작과 시비, 취사(取舍), 단상(斷常), 범성(凡聖)이란 분별이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에 맡겨 일체의 작위가 없는 평상심은 곧 '본래의 마음'으로서, 경계에 휘둘리는 중생심과는 다릅니다. (ID '푸른바다')

답 3: 평상심은 의심이 없는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의심이 있는 평상심입니다. 평상심과 중생심에 차이는 오직 의심의 있고 없음의 차이와 같습니다. (ID '김명상')

불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28

### 불립문자(不立文字)-1

이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대목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불립문자는 직역하자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인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함은 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여기에서 문자라고 한 것은 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불교문헌에 보면 흔히 물을 붙여서 '언어문자'라고 하여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면 말과 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이고 글이고 간에 도무지 믿을 것이 못되므로 글을 전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겠거니와, 말을 전혀 안 하고 듣지도 말고 살아야 한다거나, 글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뜻일까? 단단히 작심을 한다면 말과 글을 전혀 안 하고 안 쓰고 살 수도 있긴 있을 터이다. 실제로 스님들이 묵

고 그것에 가려있던 부처님으로서의 본래 정체를 발현하는 것이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 보면 무심(無心) 무념(無念) 무주(無住)를 선의 종지로 삼는다고 했는데, 망령된 마음과 생각이 없고 그런 마음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망령된 마음과 생각이 없으며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의 방식으로 마음을 쓰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을 약삭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방식으로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선종에서는 망상(妄想)을 한 마디로 분별이라고 일컫는다. 분별이 중생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이라는 얘기이다. 분별이란 개체를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체를 구별하기만 하고 그것들이

### 말과 문자 버려야 분별·집착 떠난다

인수행(懃言修行)을 하는 예도 종종 본다. 그러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기는 깊고 깊은 산속에서 평생 혼자서만 산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터이다. 아마 선의 종지에 극단적으로 충실하고자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이들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으며 불교의 역사에서도 기억되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부처님이라면 중생과 함께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교리이다.

언어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언어문자를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전하는 일에서는 언어문자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거기에 의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중생의 망상(妄想)을 쓸어버리

서로 불이적(不二)의, 연기적(緣起)인 관계 속에 있다는 면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언어문자는 워낙 그 속성과 기능의 핵심이 분별에 있다. 분별하는 의식과 판단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한편으로는 분별 의식을 만들어내는 장치인 언어문자이다.

하기는,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별부터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물을 분별하는 데에는 곧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이름 붙이기가 함께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말을 가져다가 붙인다는 것은 곧 분별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하면 나무가 아닌 것들과 나무를 분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인간의 정신 작용인데, 이것을 두고 왜 선종에서는 그러도 심각하게 문제를 삼을까?

유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11		9	10		
		14		15	
16	17		18	19	20
		21			
23			22		25
26			24		27

정답은 19면에

### 세로

1. 음력 십의 다른 이름 2. 후한의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사정제 3. 열한 경轉法輪 3. 스님이 설법할 때 가지는 지팡이 4.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 5. 대수롭지 않게 여기 추세 6. 현역 군인의 복무해제를 뜻함 10.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의 이자 12.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 13. 그 자리에 없는 사람 17. 부처님에게 설하신 묘법, 법사라고도 함 18. 법령 20. 컴퓨터에서 CPU를 제외한 여러 장치 21. 지장보살과 심왕을 모신 전각 22.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락으로 삼는 사람을 지칭 23.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한 가지 25. 율곡과 그림.

### 상식퍼즐

가로

1. 입으로 전혀 내리려 5. 재화를 획득, 이용하는 활동 7.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뜻 8.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린 시대를 통칭함 9.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명청시대의 궁전 11. 중생의 선악의 업을 비추는 거울 13. 도리에 맞지 않을 14. 사람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 가치 15. 물자와 재료 16. 종립 중등교육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님 19. 나라의 일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21. 이름을 지어 붙이는 의식 23. 왕조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외의 모든 벼슬아치를 통칭하는 말 24. 물레 장기를 가는 것 26.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길 27. 재산을 모아 부자됨.